

두산인프라코어(주) 제3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 두산인프라코어(주) 제3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반공모 청약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약취급장소에서 교부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고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배정금액(배정단위 : 10,000원)'이 행사가액 이하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소수점 절사) = 최종 배정금액 / 행사가액)

- 다 음 -

1. 청약자격: 개인, 법인, 전문투자자 등 (청약일 당일까지 청약취급처에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일: 2017 년 7 월 27 일 ~ 7 월 28 일 (08:00 ~ 16:00)
3. 청약취급처: 인수단(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유안타증권)의 본.지점
4. 모집총액 : 348,050,320,000원 (구주주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한 일반공모 모집총액)
5.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 8,030 원
6. 환불일: 2017 년 8 월 1 일
7. 청약단위 :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 만원으로 하여
100 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은 100 만원 단위,
1,000 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은 1,000 만원 단위,
1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은 5,000 만원 단위,
1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은 5 억원 단위, 100 억원 이상은 50 억원 단위로 합니다.
(최대청약한도 348,050,320,000 억원)
8.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청약증거금의 대체 : 청약증거금은 발행 및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 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10. 청약결과 배정공고: 2017 년 8 월 1 일 인수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1. 청약방법 : 영업점내방, 홈페이지/HTS, 유선청약 등 가능하나 청약처마다 청약방법이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증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단	구분	본지점방문	HTS	홈페이지	유선	ARS
NH 투자증권	청약가능방법	○	○	○	○	X
한국투자증권	청약가능방법	○	○	○	○	X
미래에셋대우	청약가능방법	○	○	○	○	X
신영증권	청약가능방법	○	○	○	X	○
유안타증권	청약가능방법	○	○	○	○	X

12. 배정방법

가.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사 통합)청약 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다. 상기 다.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최종 배정금액(배정단위 : 10,000 원)'이 행사가액 이하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소수점 절사) = 최종 배정금액 / 행사가액)

■ 투자설명서 및 핵심투자위험 안내서 교부 사유

1)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5 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단 청약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신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홈페이지/HTS 에서 투자설명서 및 핵심투자위험 안내서를 다운받고 청약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온라인에서 제공받음에 동의확인]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작성 후 청약하셔야 합니다.

본 주식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효력발생 지정은 정부 혹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거나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